



# 2025 부산대학교 다양성 보고서

PNU Diversity Report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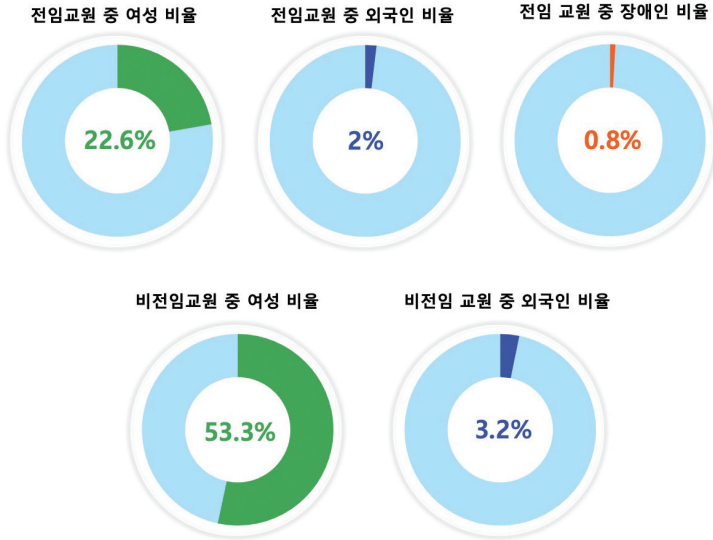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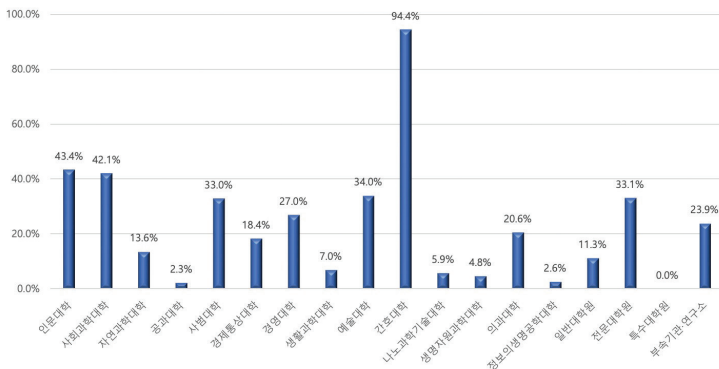
# I

## 구성원의 다양성

### 교원의 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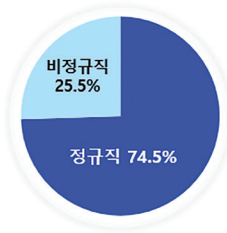


### 단과대별 여성 전임 교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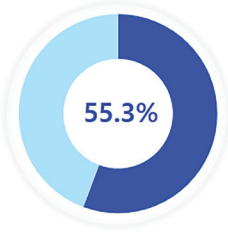


## 직원의 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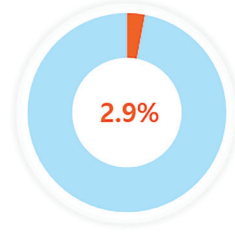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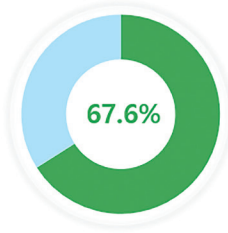
정규직 중 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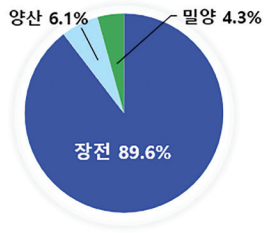
정규직 중 장애인 비율



비정규직 중 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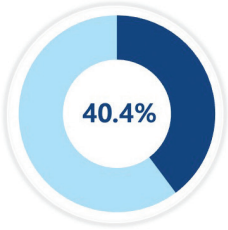


캠퍼스별 직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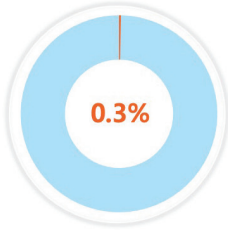


## 학생의 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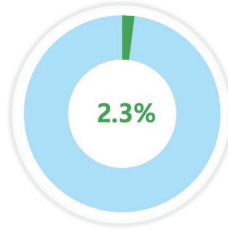
학부생 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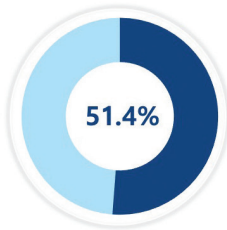
학부생 장애인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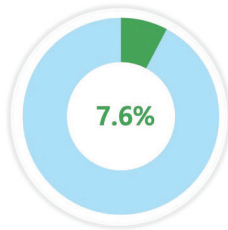
학부생 외국인 비율



대학원생 여성 비율



대학원생 외국인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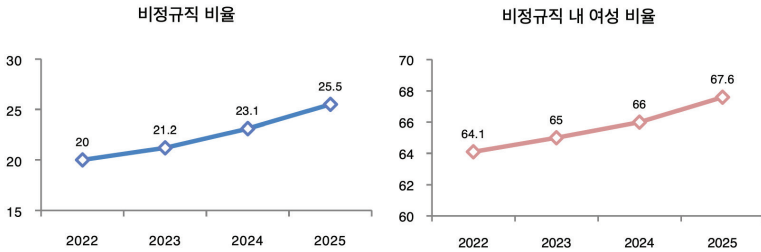


## II

## 구성원 현황 변화 추이(2022~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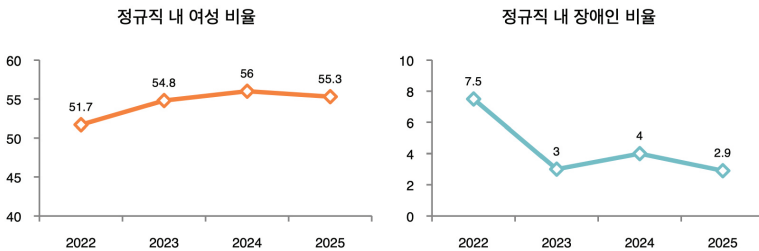
기준일: 2025.4.1. (단위: 명, %)

### 비정규직 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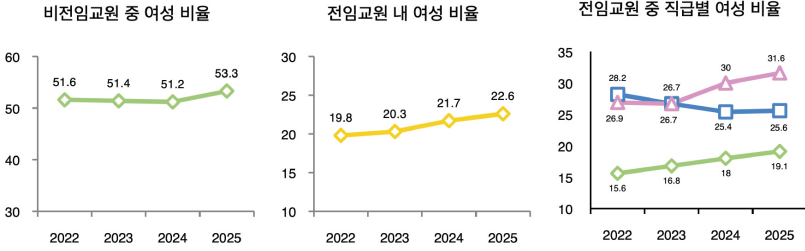
-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직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율이 20%에서 25.5%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다.
- 비정규직 가운데 여성 비율은 64.1%에서 67.6%로 증가하였다.
- 대학 사회 내에서 고용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고용 불안정에 더 취약함을 보여준다.

### 정규직 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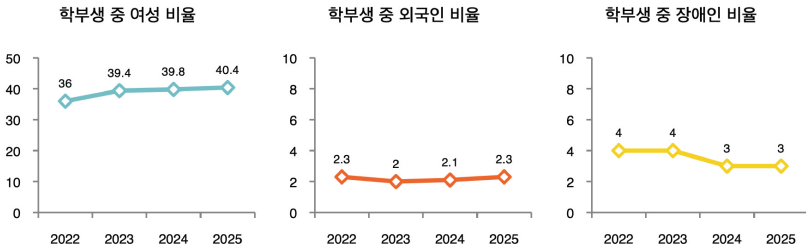
- 정규직 직원 가운데 여성 비율은 51.7%에서 56%까지 증가하다가 25년에는 소폭 감소했다.
- 정규직 직원 중 장애인의 비율은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 22년에서 23년 사이에 비율이 감소하긴 했지만, 장애인 숫자가 워낙 소수이므로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변화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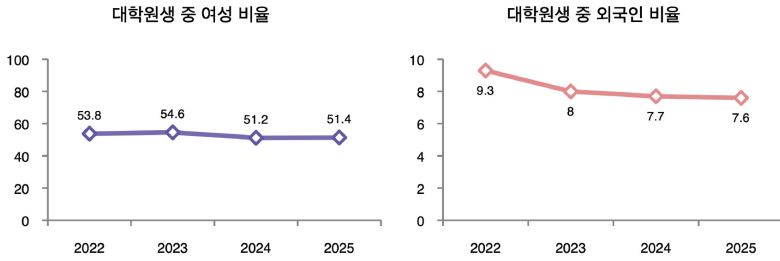
- 비전임교원 중 여성 비율은 51.6%에서 53.3%로 소폭 증가하였다.
- 전임교원 중 여성 비율은 19.8%에서 22.6%로 서서히 증가하였다.
- 전임교원 중 조교수의 여성 비율은 26.9%에서 31.6%로 증가하였으며, 정교수의 여성 비율도 15.6%에서 19.1%로 증가하였다.

## 학부생



- 학부생 중 여성 비율은 36%에서 40.4%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 학부생 중 외국인 비율과 장애인 비율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

## 대학원생



- 대학원생 중 여성 비율은 53.8%에서 51.4%로 감소하였다.
- 대학원생 중 외국인 비율은 9.3%에서 7.6%로 매년 소폭 감소하였다.

### III

## 다양성 지수

### 1. 다양성 지수 개요

부산대학교 구성원 다양성 지수는 교원, 직원, 학부생, 대학원생이 얼마나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준다. 구성원 다양성 지수 산출을 위하여 심슨지수를 이용하였다.

다양성 지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다양성 지수의 값이 클수록 집단이 풍성하고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구성원 다양성 지수로 성별 다양성 지수, 국적 다양성 지수, 장애 다양성 지수, 최종학위대학 다양성 지수, 최종학위취득국 다양성 지수를 고려하였고 자료의 유무에 따라서 각 집단에서 계산된 지수는 <표 1>과 같다. 2025년에는 직원의 최종학위대학 다양성 지수는 개인정보 침해 사유로 계산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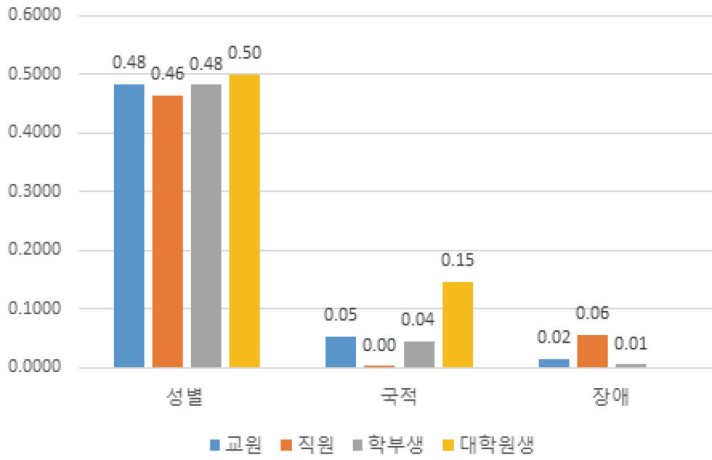
<표 1> 각 집단별 구성원 다양성 지수 계산 여부

구성원 다양성 지수	교원	직원	학부생	대학원생
성별	○	○	○	○
국적	○	○	○	○
장애	○ (전임/기금)	○ (조교 제외)	○	X
최종학위대학	○ (전임/기금)	X	X	X
최종학위취득국	○ (전임/기금)	X	X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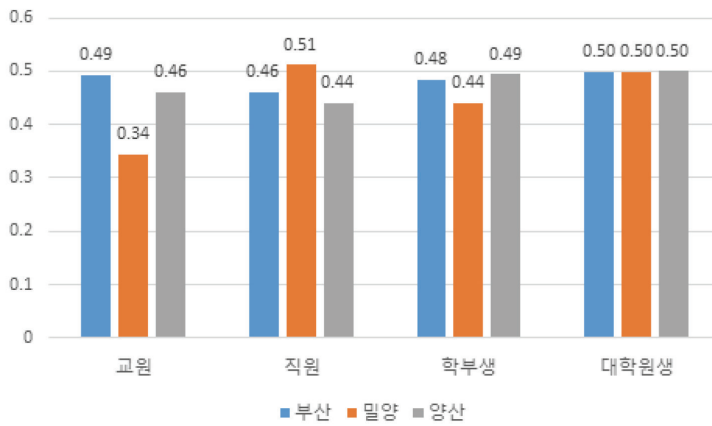
### 2. 구성원 다양성 지수

본 보고서에서는 교원 3,157명, 직원 755명, 학부생 26,434명, 대학원생 8,361명의 자료를 이용하여 구성원 다양성 지수를 산출하였다. 단, 기타교원은 다양성 지수 산출에서 제외하였다. 기타교원으로는 명예교수 689명, 특임교수 9명, 석학교수 4명, 교류교수 2명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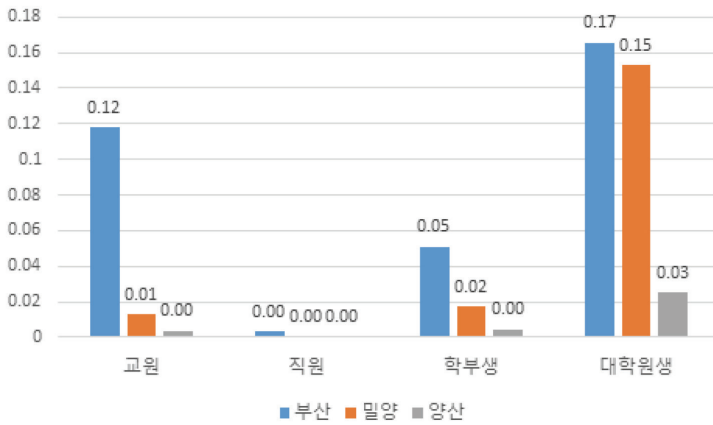
### 성별, 국적, 장애 다양성 지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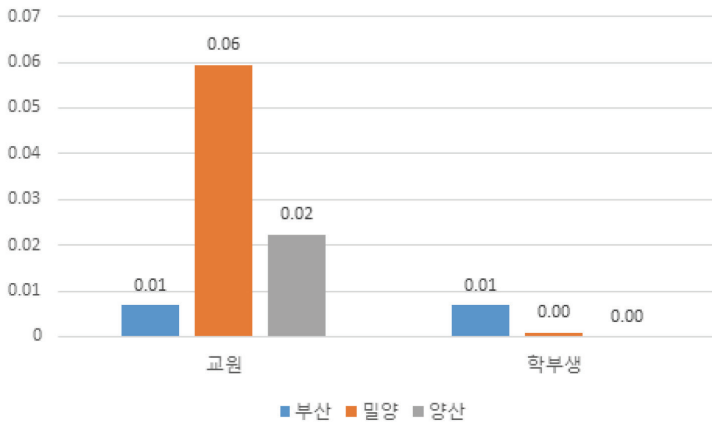
### 캠퍼스 성별 다양성 지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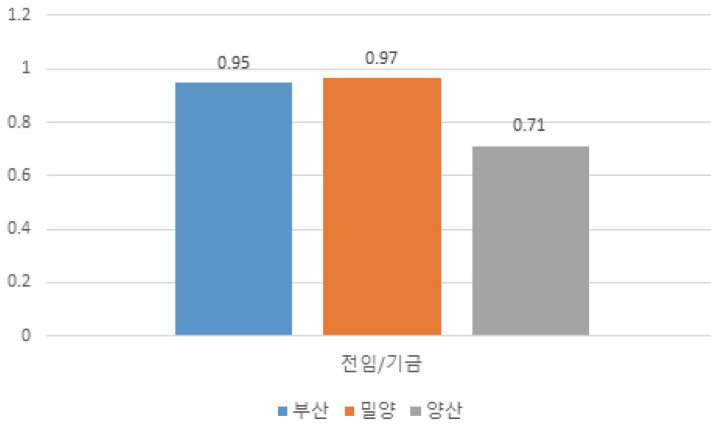
### 캠퍼스 국적 다양성 지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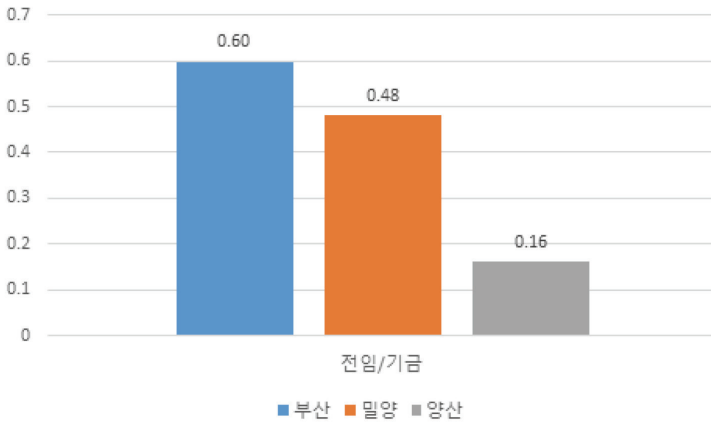
### 캠퍼스 장애 다양성 지수 현황



### 캠퍼스 최종학위대학 다양성 지수 현황



### 캠퍼스 최종학위취득국 다양성 지수 현황



# IV

## 국제학생 경험 및 DEI 인식 조사

### 1. 국제학생 경험 및 DEI 인식 조사 요약

- **조사의 목적 및 관점:** 국제학생의 어려움을 개인의 적응 문제로 보지 않고, 대학의 구조적 환경(포용성, 제도적 지원 등)이 학생의 경험을 어떻게 만드는지 분석한다.
- **핵심 요소:** 대학의 포용적 환경, 차별 경험, 학생의 내적 자원

### 2. 주요 분석 차원 (3가지)

- **대학의 포용적 환경:** 제도적 지원 체계와 더불어 학생이 느끼는 소속감, 소통 수준, 소외 및 배제 경험을 측정한다.
- **차별 및 권력 관계:** 학생 스스로의 소수자 인식뿐만 아니라, 학문적·제도적 위계에서 발생하는 권력 기반 괴롭힘 실태를 조사한다.
- **내적 자원:** 대학 지원 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주관적 자신감인 ‘정보 접근 효능감’과 대처 방식에 주목하여, 지원이 절실한 소외 집단을 발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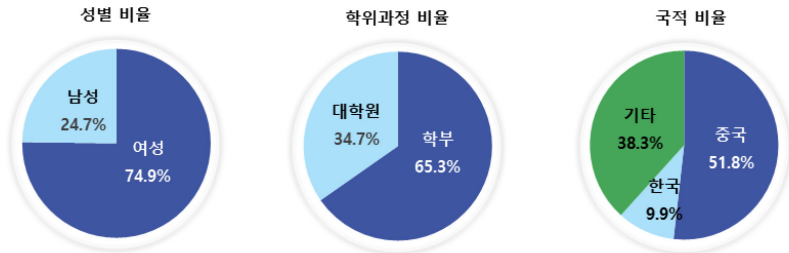


〈그림 1〉 국제학생의 대학 생활 경험 및 DEI 인식에 대한 모형

### 3. 조사 방법 및 대상

- **방법:** 양적 조사(설문)와 질적 조사(서술형 자료 분석)를 병행하였다.
- **대상:** 부산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학위과정 재학생 219명(전체 국제학생의 약 17.8%). 단, 체류 기간이 짧은 교환학생 및 방문학생은 조사 목적상 제외되었다.

항목	내용
조사 목적	국제학생 경험과 DEI 인식을 구조적으로 파악
조사 방식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 기간	2025.11.28.~2025.12.19.
조사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참여자 수	219명
포함 대상	학부·대학원 학위과정 국제학생
제외 대상	교환학생, 방문학생



〈그림 2〉 조사 참여자의 성별, 학위과정, 국적 비율

### 4. 대학의 포용적 환경

- **국적에 따라 갈리는 포용 경험**  
 포용성은 국제학생이 대학 공동체의 진정한 일원으로 수용되어 소속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적응 차원을 넘어, 문화적 차이나 의견 대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심리적 안전감을 느끼며 소통할 수 있는 대학의 문화적 환경을 평가한다.

실태	해석	시사점
국적에 따른 경험의 위계화 뚜렷함	구조적 자본 격차에 의한 결과	집단 세분화 및 맞춤형 지원 필요함
- 성별·학위보다 국적이 핵심 변수임	- 개인 역량이 아닌 구조적 환경 문제임	- 국제학생을 단일 집단으로 보지 말아야 함
- 포용성: 한국1 > 중국 > 기타 국적 순임	- 언어, 문화자본, 정보 접근성이 결정적임	- 국적 기반 하위집단 정밀 분석이 시급함
- 소외/배제 경험: 기타 > 중국 > 한국 국적 순임	- 소수 국적 학생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운영 인프라의 질적 개선에 집중해야 함

## 5. 차별 경험

### • 사회적 소수자 인식

참여자 중 자신을 사회적 소수자로 인식한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전체 219명 중 80명으로, 그 비율은 36%이다. 국제학생이 대학 공동체 내에서 '주변인'으로 인식되며, 국적과 인종 기반의 비가시적 위계가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단순적용 지원을 넘어, 다문화 포용 환경을 강화하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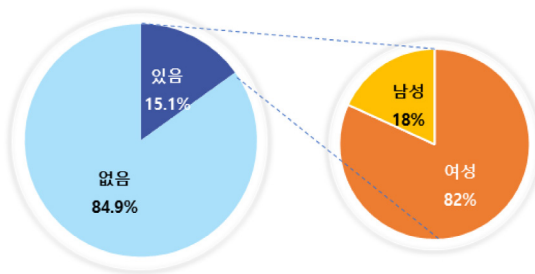
실태	해석	시사점
국제학생 3명 중 1명 이상이 소수자로 스스로를 인식	인종과 국적이라는 정체성이 대학 공동체 내에서 '주변인' 인식	인종과 국적 기반의 차별적 구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 주요 이유: 인종·국적 58.3%	- 국적에 따른 포용성 분석과 일치하며, 대학 내 위계가 인종과 국적에 따라 작동함	- 포용적 환경으로 체질 개선 필요함

1 한국 국적으로 응답한 학생들은 스스로를 국제학생으로 인식하여 설문에 참여하였으나 국적 항목에서는 한국으로 표기한 경우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선발된 국제학생으로 추정됨.

• 권력 기반 괴롭힘

지도교수나 상급자(선배), 또는 학문적·제도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부터 발생하는 부당한 대우와 괴롭힘은 학문적·위계적 권력 구조 속에서 발생하며 공식 신고 활용이 낮고 보복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안전한 신고체계 구축과 제도적 보호 강화가 시급하다.

실태	해석	시사점
공식·비공식 위계 구조 내 다양한 괴롭힘 존재함	학문적 권력 비대칭성이 인권 침해의 기제로 작동함	안전한 신고망 구축과 대학 구성원의 인식 체질 개선 시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학생의 15.1%가 부당 대우를 경험함(여성 비율 82%로 압도적)</li> <li>- 유형: 언어·출신 차별, 행정/평가 불공정, 지도교수 권력 남용 등</li> <li>- 피해: 자존감 상실, 의견 개진 위축, 정신건강 악화 호소함</li> <li>- 대응: 피해 사실을 주로 친구·가족(77%)과 공유하며, 공식 청구 활용(14%)은 저조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향력을 가진 사람’의 범위가 교수뿐 아니라 행정직원, 선배 등 위계 전반으로 조사됨</li> <li>- 성희롱·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윤리 위반도 확인됨</li> <li>- 보복 두려움으로 인한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될 가능성 존재. 공식 신고 시스템 활용은 저조함</li> <li>- 도움 요청 경로의 편중은 대학 내 공식 지원 체계에 대한 불신을 방증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한 신고망 구축과 대학 구성원의 인식 체질 개선 시급함</li> <li>- 보복 우려가 없는 실효성 있는 익명 신고 및 보호 시스템 마련해야 함</li> <li>- 교직원·한국 학생 대상 다문화 감수성 교육을 의무화하여 차별적 언사 방지해야 함</li> <li>- 한국어 중심의 행정 정보를 다국어로 의무 제공하여 정보 접근 격차 해소해야 함</li> </ul>



〈그림 3〉 학문 환경 내 권력 기반 괴롭힘 비율

## 6. 개인의 내적 자원

### • 대처방식 및 정보접근 효능감

대처방식은 국제학생이 학업 및 대학 생활 중 직면하는 갈등이나 스트레스 상황을 관리하고 극복하기 위해 동원하는 심리적·행동적 전략을 의미한다. 정보접근 효능감은 국제학생이 대학의 공식적·비공식적 지원 체계에 대한 접근 가능성 인식과 주관적 효능감을 측정했다.

실태	해석	시사점
국적과 학위과정에 따른 능동적 대처 및 정보 접근 격차 뚜렷함	대학원의 구조적 위계와 문화차이의 차이가 대응 전략에 영향을 미침	대학원 특화 지원 및 한국 시스템에 대한 문화자본 수준에 따른 세분화된 지원 정책 수립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위과정: 대학원생이 학부생보다 '회피대처'를 더 많이 사용함</li> <li>- 국적: 한국 국적 학생이 외국 국적 학생보다 문제 해결 및 사회적 지지 활용 등 능동적 대처와 정보접근 효능감이 높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원생의 높은 회피대처는 연구실 내 폐쇄적 위계와 권력 관계에서 기인함</li> <li>-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 국제학생 간의 격차는 개인 역량이나 언어적 우위와 한국 시스템에 대한 문화자본 유무에 따른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원생의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실 단위를 넘어선 공식 정보 제공 체계 강화해야 함</li> <li>- 외국 국적 학생의 정보 접근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다국어 행정 가이드 및 공식 멘토링 확대 필요함</li> </ul>

## 7. 부산대학교 생활 경험과 제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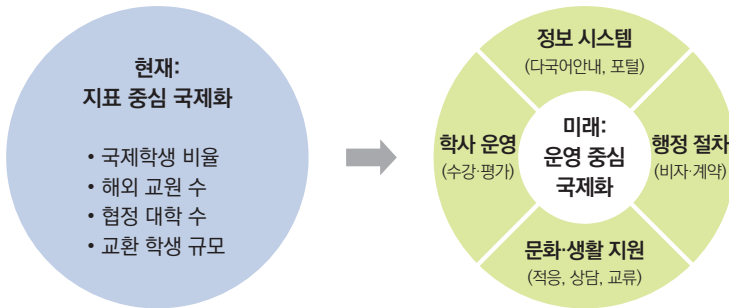
국제학생의 실제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개방형 질문을 통해 대학 생활 전반 경험, 대인관계 경험, 학업 경험, 제도 및 지원체계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였다.

영역	긍정 경험	어려움	제도 개선 요구
대학 생활	캠퍼스, 장학금, 관계	언어, 행정	논문·한국어·튜터링
대인관계	친구, 동아리	피상적 관계	버디 프로그램
학업	교수 지원, 튜터링	언어, 평가	취업·인턴십
제도	일부 지원 존재	정보 부족	다국어 시스템, 전담 인력

## 1. 국제화 관점의 전환

- 국제화를 학생 수, 외국인 교원 수 등 정량 지표 중심으로 접근할 경우 한계 존재
- 중도 탈락률 상승은 국제화의 문제가 입학 이후 정착 과정과 긴밀한 상관관계 드러냄
- 국제화는 단순한 '유입 확대'가 아니라, 학사·행정·정보·문화가 결합된 운영 인프라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문제로 전환되어야 함.

국제화는 모집이 아니라 정착의 문제이며, 유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참여의 문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부산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중도 탈락률의 상승과도 연결된다. 2019년 2.1%였던 중도 탈락률이 2024년 8.7%로 상승했고,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는 지표는 국제화의 병목이 "입학 이후"에 있음을 보여준다. 제5장의 결과에서 국제학생들이 인종·국적을 이유로 자신을 소수자로 인식하고, 정보 접근성과 관계 형성에서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결국 국제화를 지속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 구성원이 대학이라는 제도와 어떻게 관계 맺는지를 바꾸어야 한다.



〈그림 4〉 국제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 지표 중심에서 운영 중심으로

## 2. 국제화를 가로막는 구조적 조건: 언어, 정보, 제도

본 보고서는 한국 대학 전반의 구조적 조건이 국제 구성원의 경험을 형성한다고 본다. 첫째는 용어와 분류의 문제다. 대학은 대외 홍보에서는 “국제학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내부 행정과 규정에서는 “외국인”이라는 법적·관리적 범주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언어적 이중성은 국제 구성원을 공동체의 참여자로 보기보다 관리와 통제 대상으로 보는 경향을 강화할 수 있다. 즉, 용어의 선택은 단지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책임의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다.

둘째는 정보 제공 방식이다. 대학은 공식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국제 구성원이 실제로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비용, 등록금, 주거비, 장학금, 생활비, 비자, 보험, 수강, 학적, 기숙사, 상담, 디지털 시스템 이용 등 핵심 정보가 부서별로 분절되어 제공되거나, 한국어와 영어 버전 간 정합성이 떨어지거나, 외국어 페이지가 개요 수준에 그치는 경우 국제 구성원은 정보를 스스로 수집·비교·재구성해야 한다. 이는 정보의 부재가 아니라 정보 설계의 실패다.

셋째는 다국어 지원의 한계다. 다국어 페이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운영상 동등한 접근성이 보장되는가이다. 기숙사 절차, 수강신청, 전산망 사용, 인쇄 시스템, 장학금 정보, 학과 내규, 공지사항처럼 일상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안정적으로 영어 또는 기타 언어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국제 구성원은 언제나 한국어를 기준 텍스트로 삼아 추가 확인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다국어 제공은 상징적 조치에 머물 뿐 실질적 인프라가 되지 못한다.

## 3. 국제화 인프라 구축 방향

본 보고서는 부산대학교가 정보와 지원 체계를 이용자 경험 중심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국제학생이 입학 전부터 비용과 생활 정보를 조기에, 통합된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등록금, 기숙사비, 예상 생활비, 장학금, 고용 가능성 등은 단순 공시가 아니라 국제학생의 의사결정 안전장치로 기능해야 한다.

둘째, 국제학생 전용 정보 허브가 필요하다. 정보가 국제처, 단과대학, 기숙사, 학사부서 등 여러 경로에 흩어져 있으면, 국제학생은 내부 행정 구조를 미리 알아야만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입국 전 준비-등록-학기 중 생활-체류 유지-졸업 및 진

로의 흐름에 따라 정보를 하나의 안정된 인터페이스 안에서 제공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셋째, 실질적 다국어 안내가 필요하다. 모든 정보를 기계적으로 다 번역할 필요는 없지만, 국제학생의 학업과 생활 지속에 필수적인 핵심 정보는 언어와 무관하게 기능적으로 동등하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 특히 공지사항, 학과 내규, 장학금 정보, 수강 및 행정 시스템 이용 안내, 상담과 보건 서비스, 신고 절차 등은 다국어 제공의 우선 영역이다.

넷째, 생활 정보는 캠퍼스 내부를 넘어 부산 지역사회까지 확장될 필요가 있다. 주거, 교통, 의료, 종교, 문화, 생활비, 지역 여가 정보 등은 국제학생의 학업 지속성과 직접 연결된다. 대학이 이를 모두 책임질 수는 없지만, 신뢰 가능한 참조 체계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국제학생이 부산이라는 도시 안에서 생활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국제화는 단기 체류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제도 환경이 된다.

#### 4. 학업 및 문화 지원 재구조화

국제학생 지원은 단순한 부가 서비스가 아니라 학업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여야 한다. 학업 지원 측면에서 부산대학교는 튜터링, 대학원생 논문지도, 한국어 교육, TOPIK 대비, 학사 절차 안내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여전히 전공별 튜터링, 논문 작성 지원, 영어 강의의 실질적 운영, 대학원생 맞춤 정보 지원, 멘토링 확대가 요구된다. 이는 국제학생의 학업 참여를 “개인이 버티는 문제”로 두지 않고 제도적으로 조직해야 한다는 뜻이다.

문화 지원 역시 일회성 행사 중심을 넘어야 한다. 현재의 문화 체험, 현장 견학, 행사 중심 지원은 입문 단계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지속적인 관계 형성 인프라로는 한계가 있다. 국제학생 조사에서도 교류 및 문화 적응 지원 요구가 높았던 이유는 바로 이 지점 때문이다. 국제학생과 한국 학생이 반복적으로 만나고, 서로를 학습하며, 신뢰를 축적할 수 있는 구조가 부족하다.

따라서 문화 지원은 두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일상적이고 반복 가능한 장소 기반 교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례화된 버디 프로그램, 학과 단위 교류 포럼, 학기별 지속 모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국제학생을 일방적 적용의 대상으로 두지 않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주체로 위치시키는 것이다. 국제학생 주도

의 문화 발표, 토론회,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등은 상호성을 강화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국제학생이 한국 문화를 배우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대학 공동체 전체가 서로를 배우는 구조”다.

### 국제화를 위한 환경조성 요약

구분	핵심요소	실태	제안 및 개선 방향
국제화 인프라 핵심 과제	정보 접근 구조	정보가 부서별(국제처, 학과, 기숙사 등)로 분산되어 탐색 비용 발생	통합 정보 허브 구축: 단일 인터페이스 내 단계별 (입학~졸업) 경로 설계
	언어 불균형	한국어 중심의 정보 제공, 영어/다국어는 요약 수준에 그쳐 정보 비대칭 발생	기능적 동등성 확보: 실무·행정 정보 (학내망, 시설 이용 등)의 다국어 일관성 유지
	비용 정보	등록금, 기숙사비 등 핵심 비용이 사후 공개되거나 개별 문의 위주로 운영	사전 통합 제공: 입학 전 단계에서 생활비 포함 재정 타당성 평가가 가능하도록 공개
	생활 정보	안내 범위가 캠퍼스 내부 행정에 국한되어 초기 안착 지원에 한계	지역사회 연결 확장: 주거, 교통, 의료, 종교 등 부산 지역 인프라 정보로 확대
학업·문화 지원 재구조화	학업 지원	튜터링, 논문 지도 위주의 보조적 프로그램 운영	학업 실질화: 다언어 기반 학술 세미나 등 국제 구성원을 ‘참여자’로 상정하는 환경 조성
	문화 지원	일회성 이벤트, 체험 위주로 초기 적응 단계에만 치중	지속적 관계 구조: 장소 기반(-House 등) 교류 및 상호 호혜적 프로그램으로 전환

### 부산대 국제학생을 위한 창구

인권센터	효원상담원	학업 지원 프로그램	동아리
